

# 여수시, UN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 힘모은다

올 상반기 국가계획 확정 앞두고 전남도와 함께 정부 건의 등 총력 대형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하고 남해안 지자체들과도 공조 박차 내년 총회에서 2022년 개최국 결정...세계 97개국 3만여명 참가

여수시의 당사국총회 유치 노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UN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 논의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회의인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회의가 여수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28차 당사국 총회(COP28)는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오는 2022년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97개국에서 총 3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권 차기 개최국을 결정하며 한국 개최시 국내 유치 도시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여수시는 박람회 전부터 COP 유치를 추진했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관합동 유치 활동 등 COP28 유치 성공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

특히 당사국 총회의 가장 강력한 후보지인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도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유치 지지의사를 밝혀 총회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동서포럼'에 직접 참석해 여수 유치를 약속한 사실과 2020년 전남도 3대 핵심과제에 COP28 유치가 포함된 점 등도 호재다.

여수시는 남해안 제 28차 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역량 결집은 물론 행정력 집중을 통한 분위기 확산에 나서고 있다.

COP28 유치 성공을 위한 로드맵 실행은 물론 국가계획 확정 추경과 여수 유치를 위한 청와대 및 외교부 방문계획 등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여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오는 3월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국가 유치 계획 확정 및 여수 유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 남중권 지자체별 순회 교육과 축제장 홍보 부스 운영, 유치 기원 읍면동 릴레이 시민결의대회 등도 추진한다.

전남도도 남중권발전 협의회와 발맞춰 움직이면서 사·도민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COP28이 올해 상반기 중 국가계획으로 확정돼 대한민국 개최가 결정되



김영록(왼쪽에서 세번째) 전라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여수시 오동도 마티유호텔에서 열린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 향후 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 남해안 남중권의 10개 도시들과 연대해 여수박람회장에서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유치 신청할 계획이다.

여수 유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오는 2022년 11월 7일부터 2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남중권 지역에서 분산 개최된다.

반면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는 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여수박람회장 내 회의장 시설로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당사국총회 유치와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민자유치를 통한 여수박람회장 내 대형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제컨벤션센터 전시장 8000㎡와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5000㎡ 규모의 회의장으로 구성되며 용역 결과 센터 건립비용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1149억원 규모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당초 전남도와 공동으로 국비 확보에 나섰다지만 정부 정책상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만큼 민간투자를 통해서라도 COP28 유치 성공을 위한 국

제컨벤션센터 건립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아울러 오는 2022년 COP28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제시는 물론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가 여수박람회장 컨벤션센터 엑스포 홀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여수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여수형 마을기업 모집 시, 31일까지 3곳 선정

여수시가 여수형 마을기업을 31일까지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 사업을 벌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수시는 심사를 거쳐 마을기업 3곳을 선정해 2000만원씩 지원한다. 법인, 회사, 협동조합 등으로 등록된 단체면 응모할 수 있다.

지역특산물 가공, 자연 자원 활용사업,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등 지역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여수시는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을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약정 체결과 보조금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사업에 들어간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여수시, 90%까지 확대 호응

여수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90%까지 확대해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시는 출산가정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년 7월부터 건강관리사 지원 기간을 5일 늘려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15일까지,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20일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90%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 지원 확대 시책 이후 지원자가 1096명으로 출생아 대비 지원율이 12% 가량 증가하면서 출산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후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은 소득 유형과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총서비스 가격과 정부 지원금이 상향된다.

2020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개정 서비스 가격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가 초과된 첫째 아이의 경우에도 시에서 90%까지 지원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관리사 채용 시 건강진단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건강관리사 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추가되며 쌍둥이일 경우 건강관리사가 2명이 파견되어 서비스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의 특화 시책으로 모든 출산가정이 소득 상관없이 혜택을 받아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제5기 SNS 서포터즈 발대식...여수의 매력 알린다

작가·직장인·주부 등 25명 선정 소통·공감도 높이기 본격 활동

제5기 여수시 SNS 서포터즈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권오봉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둔덕동 여수살롱에서 여수시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여수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위촉된 서포터즈는 지난해 12월

모집해 서류심사 등을 통해 최종 25명이 선정됐다.

서포터즈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과 작가, 직장인, 사진작가, 주부, 강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됐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1년간 여수시 곳곳을 다니며 주요행사, 시책, 관광정보 등 유용한 지역의 소식을 SNS를 통해 홍보하게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올해는 우리 여수가 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해로 유엔기후변화협

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 박람회장 사후활용, 2023년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등 현안사업을 앞두고 그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역 인플루언서로서의 서포터즈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첫 출발한 여수시 SNS 서포터즈는 올해 57명으로 여수의 다양한 매력과 숨은 이야기를 찾아 SNS로 적극 홍보해 여수시가 대한민국 SNS 대상과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 소셜미디어 대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지난 22일 여수시 둔덕동 여수살롱에서 열린 '제5기 SNS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한 서포터즈들이 권오봉 여수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 '뺏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 특별단속

여수시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뺏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경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14일까지 강력 단속(사진)에 나선다. 시는 불법 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이른바 수 천만원 대 '피' (프리미엄)가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기특이나 높아진 새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실정여서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

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 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면서 "시민들도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 관계자들이 '뺏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시 제공)

# JTBC 뉴스룸 법정패소와 7대 거짓말

**2020년 1월 8일 서울서부지법 판결**  
"JTBC 뉴스룸은 정정보도하라! 만약 정정보도하지 않을 경우, 정정보도할 때까지 1일 100만 원씩 배상하라. 정정보도는 뉴스룸 앵커가 평상시 속도로 법원명령서를 낭독하며 잘 볼 수 있도록 자막을 계속해서 띄워라."

**JTBC 뉴스룸 무엇이 문제였나?**  
1 뉴스룸 제작진은 제보자를 조작했다  
2 뉴스룸 기자들은 현장취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  
3 뉴스룸 제작진은 제보내용도 조작했다

뉴스 조작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뉴스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뉴스룸을 폐지하라!  
뉴스룸 책임자 거짓말쟁이 손석희는 방송계를 떠나라!

**1 뉴스룸은 제보자를 조작했다**  
2018년 8월 5일 뉴스룸에서는 '돌나라 한농복 구획'가 '천여 명을 브라질로 이주시켰으며 그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강제노동 당했다고 털어놓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브라질 영사가 농장에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민원 서비스를 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외교부에 정식 보고했다. JTBC는 브라질에 여행조차 가지 않은 거짓 제보자를 마치 당한 피해자라고 조작한 것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 뉴스룸은 현장취재를 하지 않았다**  
JTBC 기자들은 단 한 번도 돌나라 브라질 농장이나 한국에 있는 10개 농장을 취재하거나 정확한 적도 없다. 그런데 법정에 제출하기는 방송 전에 한국 농장을 취재했다고 감히 법정도 속이려다 들들 나서 이변에 법정 심판을 받았다.

**3 뉴스룸은 제보내용도 조작했다**  
뉴스룸은 2018년 8월 당시 일어나고 있는 사건처럼 보도했지만 법정에선 2009년 이전 내용이라고 드러났다. 그러나 그날 뉴스를 봤던 사람 중에 누

가 10년 전 사건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었는가? 더 중요한 것은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이 법정에 제출한 서류에도 나와 있다. 거짓 제보자의 말을 한술 더 떠서 (조작 보도)했다. 팩트 제보자의 말을 한술 더 떠서 (조작 보도)했다. 팩트 제보자의 말을 한술 더 떠서 (조작 보도)했다.

**4 반론권은 커녕 연락조차 없었다**  
뉴스룸 제작진은 반론권은 들켜지고 방송 전 연락조차 하지 않았는데 법정 답변은 보도 전 반론권을 주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했었다고 대놓고 거짓말했다. 그렇다면 보도 전에 전화 한 통을 대면 간단하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5 뉴스룸 기자들의 또 다른 거짓말**  
회원들은 최대한 대충만 아 이주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방송했다. 이것은 악의적인 제보자의 말을 확인하지 않은 결과였는데 법정에서는 브라질 농장 이야기가 아니라 국내 농장 이야기라고 변명했다. 뉴스에서는 브라질 이야기만 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 농장도

그런 사실조차 전혀 없다. 있으면 그 증거를 대라고 했더니 개인성이 있어서 보도했다고 한다. 막연한 개인성만 가지고 특종이라고 보도하는 대한민국 뉴스 신뢰도 1위라는 뉴스룸의 실체를 보라!

**6 손석희와 뉴스룸의 끝없는 거짓말**  
아이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혹행위로 고통당한다고 했으나 얼마 전에 13명의 장학관들이 방문하여 칭찬한 우수학교에서 배우고 있다.

그리고 보도 후 뒤늦게 국내 농장을 취재하려 나왔다가 마을 주민의 증언을 거짓으로 꾸며 법정에 제출했다. 그것도 법정에서 폭로되었다. 얼마나 한심한 자들이겠! 손석희와 그 기자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뉴스룸의 더러운 실상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7 거짓말쟁이 손석희는 방송계를 떠나라**  
분노한 돌나라는 행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너무 뻔한 (조작 보도)임에도 뜻밖에 증거불충분이라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JTBC 뉴스룸은 가짜로 진실을 이기는 불법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민사 합의부 판사들은 정확한 증거들을 조사한 후 뉴스룸 제작진의 비행을 깨내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렸다.

"이 보도는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보도하라!" JTBC 뉴스룸은 겨우 정정보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뉴스룸 책임자 손석희의 사장은 배배사죄하고 방송계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사법구정으로 뉴스룸은 망할 것이고, 천하의 거짓말쟁이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우롱한 (뉴스 조작)을 그대로 놔둔다면 또 다른 가짜 뉴스소가 판을 치고, 언론의 황폐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에 돌나라 한농은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JTBC 뉴스룸의 거짓 실체를 밝힐 것이다.

사단법인 돌나라한농복구회  
피해대책본부 054-535-4402  
그동안 JTBC 뉴스룸에 당한 피해 사례를 접수합니다